

# 고은 불교 대하소설



49

## 떠도는 사람들

**파** 현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살아 있을까?  
 풀잎같이 주나뭇잎을 탄 수원과 함께 그는 배의 곁쪽 쪽의 곡식섬을 살피면서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배가 떠나는 시각 때문에 몇 마디 주고 받으며 의견을 달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건너가지 않으면 물결때에는 시간이 더 걸리겠네."

"어디 그런 시간이 대수인가. 오랜만에 물에 발을 디딘 미당에 이 포구의 풍경들과 함께 술을 내수다가 귀엽귀엽 건너가세나."

알의 의견은 수원의 것이고 뒤는 파현이 였다.

수원도 그런 파현을 따르고 싶었으나 워낙 무욕도와 물 사이의 물살이 아찔할 때가 많았으므로 그런 물살에 조심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샘플도 풍부하고 어느 만큼 갈아먹을 때가 많고 게다가 술이 풀창하므로 이런 곳에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빈 섬으로 방치된 까닭에는 섬과 물 사이의 조류가 자주 이변을 일으켜 연안 어선들에게 곤욕을 치르게 되어서이기도 하였다.

조선반도 서해안의 연안 해역에는 북으로 압록강 어귀의 용담포 앞바다 황해도 장산곶 인담수 대연령도와 소연령도 사이의 바다 그리고 이곳 무욕도를 내려와 더 남쪽에는 칠산바다의 임한 조류가 저 아래 남쪽을 가쳐도 앞바다 일대까지 펼쳐져 용왕(龍王)에게 불리가는 어부들이나 수적(水賊)들이 적지 않았다.

실지로 서산반 동포에는 한낱 한시의 재

사가 푸르 14가구가 되었다. 그것은 배 세척이 한계반에 무욕도와 물 사이에 들어와서 만산(萬山)의 안도감을 누리는 사이에 그 안도감이 방심으로 되었는지 갑자기 휘감기는 물살에 배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뒤엎어지는 일로 이 배와 저 배에 탄 사람들

이 서로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다가 그런 희생자를 낸 것이다.

더구나 그때의 햇길에는 선잠의 열아홉 살짜리 열여덟살짜리들이 제대로 배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런 어이없는 희생의 이유가 있었다. '다 와서 사자밥 먹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은 것이었다.

바다에서는 빈 배보다 만선이 훨씬 안전하다. 그것은 배의 무게가 파도와 조류를 더 지탱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은 물에 가까워지는 근해의 까다로운 충격과도에 대해서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 참변은 문포의 농촌이나 어른이 그동안 용왕에게 정성껏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무욕도의 인단이 물에 건너오는 길에 그의 수행과는 관련도 없는 여러 마을이 합동으로 지내는 천후제와 용왕제에 꼭두각시노릇을 한 적이 있었다.

어쨌거나 파현의 행방불명이 배를 탄 지

후의 일이나 한참 뒤의 일이나를 따질 겨를도 없었거나 무욕도가 당장 세사림만 으르렁 허전함에 예위살어 파도소리만 더 커지고 있을 때 행방불명의 파현은 홍상의 조양문(朝陽門) 밖을 혼자 나서고 있었다.

그는 이물 '죽의 수원이 앞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이때다하고 물 속으로 몸을 집어넣으며 주낙배 안에 걸쳐있는 채 깊은 잠대에 의해서 재빨리 물살에 따라 북쪽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유난스럽게 갈매기들이 많이 떼거리를 지어 날고 있는 일로 그는 헤엄쳤던 것이다.

"이렇게 떠나는 길 밖에 없지! 나 떠나겠소하고 인사하고 떠나는 것이야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이런 말을 물에 젖은 물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차게 내뿜다가 관음 한 모금을 먹기까지 하였다.

그는 문포에서 십리 넘는 지경의 개펄에서 몸을 일으켰고 그가 의지했던 장대가 이번에는 발이 폭죽 빠지는 개펄에서 지팡이가 되어 주었다.

마 을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바닷물을 막아 소규모의 소금을 일구는 중이었다. 이를 전 그곳 앞바다에서 배 한 척이 가리웠는데 그 배에 탔던 사람으로 여겨서 노인의 보살핌을 받았다.

"고생이 많으셨소. 이렇게 살아서 다행이오."

라는 위로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 배에 탔던 고기잡이가 아니라

저 아래 무욕도의 중이다 따위의 말은 전혀 불필요하였다.

파현은 노인의 집에서 며칠동안 있다가 나왔다.

"왜 머리는 딱딱 꾸었소? 그리고보니 옷도 뱃사공의 것이 아니라 빈 대사(大師-승려)가 입는 것인 즉 어찌 산중의 사람이 바다에서 나타난 것이오?"

"네 청나라에 다녀오는 중이라고 여기사지요"라고 파현은 얼버무렸다.

그는 그곳을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종종히 떠나버렸다.

그래서 홍상 관아를 '슬쩍 피해서 성문 밖 노점 가게(茶家)에서 찜고리치 밥과 국으로 끓인 반 국밥을 사먹었다. 그의 옷은 어느덧 먹물땀이 아니라 노인이 준 낚은 무명옷이어서 진작 후줄그레하였다.

그가 무심코 입에서 나온 말이 있었다.

"수월님을 따라볼을 일이야."

그보다 훨씬 앞서서 무욕도를 떠나버린 수월이야말로 그동안 파현의 꿈이기도 하였다.

그동안 파현은 지나치게 예언이나 참(譏) 그리고 신이(神異)한 기적과 영험 따위에 골몰하다가 그런 일에 대한 수월의 맹렬한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는 수월과 함께 수월의 공격에 손을 들어버렸던 것이다.

다.

"가자."

"찾아가자... 모든 진리의 땅으로."

하지만 그는 이같은 새로운 선택이 그 자신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 사실도 뒤늦게 통감하였다. 그것은 이미 있어야 했다.

그보다 훨씬 앞서서 무욕도를 떠나버린 수월이야말로 그동안 파현의 꿈이기도 하였다.

그동안 파현은 지나치게 예언이나 참(譏) 그리고 신이(神異)한 기적과 영험 따위에 골몰하다가 그런 일에 대한 수월의 맹렬한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는 수월과 함께 수월의 공격에 손을 들어버렸던 것이다.

만 순례로써의 수행에 그 자신이 동참한 것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기도 한 것이었다.

당나라의 비실계적인 산승 한산(寒山)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인단이 즐겨 읊던 것이기도 하였다.

침침 바위 밑에 내가 사는데 새나 다니는 곳 인적 끊어져 십년이나 돌아가지 못하니 오던 때 그 길 다 잊어버렸네

(寒山轉苍苍, 山色有无中. 人迹不到处, 苍苔没履踪. 野老心常淡, 山中日自慵. 白云还自散, 明月落谁家.)

여기서 노래하는 바 '오던 때 그 길 다 잊어버렸네'는 한산이 산중에 오기 전의 속진(俗塵)을 다 벗어났다는 뜻이었으나 파현의 이단적인 풀이로는 바로 10년전에 잊어버린 그 길이야말로 진리의 길이고 보리의 길이라고 믿는 것이었다.

한산의 사자되 한산의 뜻을 부정하는 시가 되었다.

파현의 입에서 휘파람소리가 났다. 그것은 어떤 타령도 아니라 그저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소리라도 내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유의 과반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이같은 한산의 모언시(五言詩)가 떠올라 그 시의 내용을 전혀 반대로 해석 그것은 옛 한산의 시가 아니라 오늘 파현의 시로 방금 물에서 건져올린 빛나는 생미역과도 같았다.

이러면 도둑이 될 밖이요. 거지가 도둑보다 더 어려우니까 도둑이 되는 것이 쉬운 밖이요.

"나와 함께 다른 도둑이 될 생각이 없습니까?"

이것은 파현의 제안이었다.

"무슨 도둑?"

"부처님 법을 도둑질하는 것 말입니다. '에잇 실성한 사람 같으니라구!'라고 파현의 제안이 여지없이 몽개졌다.

세상은 음탕 집을 떠난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것으로 나날을 보내야 하였다.

어느덧 이같은 따돌림이 파현이 아닌 편백 수원에 이르렀다. 그는 수원 남문 밖의 객장에서 마당을 쓸어주는 일로 한 끼 밥을 얻어먹을 관이였다.

그래서 마당의 평상 밑이나 물바자 언저리의 쓰레기를 얹듯하게 청소하고 있는데 등을 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림·조향숙

# "가자 어디든지... 이것이 진리를 찾는 일이며 나누는 일이니"

## 창작과비평사의 베스트 셀러



항석영 대하소설  
**장길산**  
 개정판 / 전 10권

유홍준 지음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2**  
 유홍준 지음  
**나쁜 버릇의 맥시인전서**  
 홍세화 지음



소설  
**禪**  
 1, 2  
 고은

『장길산』은 해방 후 남한에서 창작된 수많은 역사소설 가운데 단연 으뜸이다. 역시 그 한계까지도 포함해서 『장길산』은 남한 최고의 역사소설이다.  
 - 최원식(문학평론가, 연세대 국문과 교수) 갈·각권 6,500원

『소설 禪』은 중국의 선종사의 일화를 빠른 속도로 그려내고 있다. 인간내면과 끝없는 우주의 공간을 아우르는 정신의 호탕함도 매력적이고, 선의 역사를 관통하는 수많은 기인들의 등장과 해후는 그 자체가 소설적인 사건을 만든다.  
 - 조선일보 8월 15일자 갈·각권 6,500원

서울 마포구 용강동 50-1 전화 718-0541-4 팩스 713-2403